

북한개발소식

2024 APR

04

통권 222호

이달의 주제

대북제재에 대한 고민과 우리의 기도

탈북민 수기

손이슬 자매 (제 1화)

북한뉴스

러시아, 한국인 선교사 체포... 모스크바에 구금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4 APR

이달의 주제 :

대북제재에 대한 고민과 우리의 기도

- 권두칼럼 **01** 대북제재에 대한 고민과 우리의 기도
- 칼럼_1 **10** 양운철_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전망
- 칼럼_2 **16** 김규철_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향후 전망
- 칼럼_3 **23** 문경연_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전망
- 탈북민 수기 **28** 손이슬 자매 (제 1화)
- 북한뉴스 **34** 러시아, 한국인 선교사 체포... 모스크바에 구금 외
- 서평 **38** 남북한의 삶, 만남, 평화 이야기
- 북한 기도 제목 **39**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권두칼럼

대북제재에 대한 고민과 우리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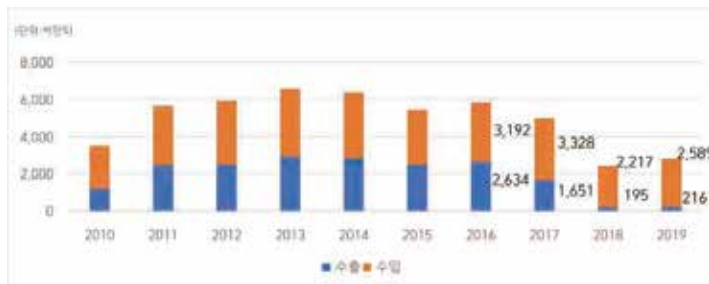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꾸준히 시행된 것은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제 4-6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2016-17년 이후부터 유엔은 석탄 수출, 임가공 무역, 노동력 수출 등 외화 벌이가 가능한 주요 영역에서의 교역을 제한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대북제재는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정권의 정책 노선을 바꾸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멈추지 않고 핵과 그 투발수단의 개발을 이어오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갈등 속에서 북중러 삼국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대북 제재도 점차 무력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대북제재를 둘러싼 이슈들과 우려, 앞으로의 전망과 기도의 제목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대북제재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2016년 제 4차 핵실험 이전 대북제재는 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억제하고 무기 수입 금지 및 금융 제재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제재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제 4차 핵실험 이후 발의된 대북제재 2270호(16.03.02.)부터는 군사 부문에만 집중되었던 제재 범위가 점차 확대가 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16-17년 3차례의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



〈북한의 수출입 액수 변화.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17년 이후부터 수출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었다. 제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대북제재 2321호(16.11.30.)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직접적인 제약을 가했고, 민생부문에 대한 예외조항도

삭제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호 발사 이후 결의된 대북제재 2371호(17.08.05.)는 북한의 외화수입원인 석탄, 철, 철광석, 납, 해산물 등에 대한 수출을 완전히 금지했고,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 또한 신규합작, 투자, 기존 사업의 확대 등을 금지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도 차단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멈추지 않고 제 6차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추가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17.09.09.)는 북한의 의류 및 섬유 수출 금지, 신규 해외노동자 허가 금지(기존 계약만 제외), 합작사업 전면 금지 등을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완전히 막는 데 주력했다. 또한 유류공급 제한(연 200만 배럴)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전면 금지 등 필수적인 에너지 수입도 제한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화성 15형 발사 이후 결의된 2397호(17.12.22)를 통해 북한 해외 노동자의 24개월 내 본국 송환 및 정유제품이나 원유제품의 공급 제한 조치가 추가되었다.

대북제재가 포괄적으로 바뀌면서 북한의 수출입은 큰 영향을 받았고, 그에 따라 북한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¹ 먼저 수출 측면에서는 연달은 대북제재로 인해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대중수출에서 약 98%를 차지하던 수출 품목들이 수출 금지 조치를 당했고, 그에 따라 북한의 수출은 급감하였다.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해관의 통계를 살펴보면 광물의 경우 2016년 수출이 12.8억 달러였지만, 2017년 5.4억 달러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에는 아예 실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해산물도 유사한 추세를 보였으며, 섬유수출도 미미한 실적(3만 달러)을 제외하고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측면에서도 무역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특히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계와 전자기기, 운송수단, 철강 및 금속류 등에 대한 제재로 인해 자본재로서의 기능을 하던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이 모두 급격히 줄어드는 모

습을 보였다. 일례로 기계는 2016년 5.9억 달러에서 2019년 838만 달러까지 떨어졌으며, 운송수단은 2.6억 달러에서 42만 달러로, 철강 및 금속류는 2.4억 달러에서 44만 달러로 급감했다.

이러한 무역량 감소는 북한 경제 전반에 압박으로 다가왔다.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16년도에는 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대북제재가 본격화 된 17, 18년도에는 각각 -3.5%, -4.1%로 곤두박질 쳤다.² 인공위성으로 북한의 야간조도를 관측하여 대북제재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북한의 제조업 생산이 12.9%, 실질 소득은 15.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³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재 해제를 요구하였는데, 그 동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우선적으로 요구하던 체제 안전 보장이 아닌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실제적인 악영향을 주었고 정권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음을 보여준다.⁴

제재의 피해와 민생에 대한 우려

그렇지만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핵과 무기 개발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제재로 인한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 민생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마당 활동이 위축되었다. 제재 초기에는 직접적인 수입 제재 품목을 제외한다면 대북제재 시행에 따른 시장 활동의 위축이나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19년도부터는 북한 지역 곳곳에서 시장 거래가 줄어드는 정황이 관찰되었다.⁵ 특히 2020년 시장물가는 제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20년 이후 북한시장의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제재충격이 중첩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수입 중단에 따라 북한의 시장물가가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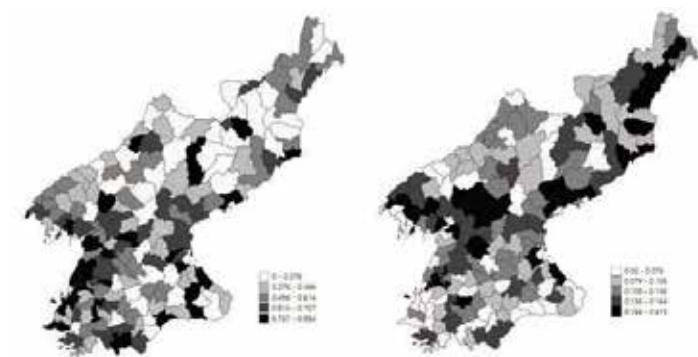
2 한국은행 홈페이지 “북한 GDP 관련 통계”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1>〉 (검색일: 2024.03.19.)

3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야간 조도'로 확인, 동아사이언스(2023.12.13.),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2894>〉

4 김규철 (2023),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력과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국가전략 제 22호 (2023.07), 9.

5 김석진 (2020), “대북 제재가 북한의 시장과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월호, 70-79.

1 이석 외,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KDI 연구보고서 2021-01 (2021), 93-139.



〈수출 제재(왼쪽), 수입 제재(오른쪽)에 따른 지역별 제재 취약도를 나타낸 북한 지도. 색이 진할수록 제재 영향을 크게 받음을 나타낸다. (KAIST)〉

등하는 모습은 북한의 시장이 외부 세계와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⁶

제재에 대응하는 북한 당국의 경제 정책도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은 제재라는 외부의 위협을 명목으로

대중 결집을 도모하며 자력갱생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외화 사용을 금지하고, 장마당에 기존에 개인들이 운영하던 여러 종류의 상점들을 금지 및 국영으로 운영하며, 장마당 내 식량 거래를 금지하고 그 유통을 양국 통제소로 일원화하는 등 국내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장기간 국경을 봉쇄하고 대외 무역을 차단하였는데, 이는 방역 뿐 아니라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⁷

그렇지만 폐쇄적인 자력갱생의 경제 정책은 민생을 악화시키며, 특별히 소외지역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북한 당국이 한정된 자원을 정권 핵심 계층과 핵 및 무기 개발에 차별적으로 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지역의 2012~19년도 야간 조도 분석을 통하여 제재의 영향을 살펴본 박영석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강해질수록 권력 유지에 필요한 핵심계층이 거주하는 평양과 신의주 등 관련 산업 지역의 조도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자원의 차등적 분배를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자원의 차별적 분배는 지방의 침체와 민생 악화를 가져왔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했는지 최고지도자의 입에서 직접 “지역 인민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며 수도와 지방의 차이 및 지역 불균형을 언급했으며, 매해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하여 10년 안에 전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겠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

6 이석 외,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KDI 연구보고서 2021-01 (2021), 229-239.
7 "북한 계속된 국경봉쇄, '내부 결속' 의도...외화 유출 우려할 수도", VOA (2021.08.10.),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north-korea-says-its-difficulties-are-war-challenges/6060846.html>

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된 공장에 대해서 원자재 조달 등 운영은 지방에서 전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⁸ 북한은 국가적으로는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기아 발생 등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소외된 일부 계층과 지역에서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정황이 관찰되고 있다. 지난해 북한 곳곳에서 굶주림으로 인한 아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미디어 보도가 있었고,⁹ 지난해 5월 서해로 목선을 타고 귀순한 두 가족도 일부 마을에서 인육 취식 소문이 돌 정도로 식량난이 극심하다고 증언했다.¹⁰

앙(A. U-jin Ang)과 팩센(Dursun Peksen)은 독재체제의 경우 제재의 피해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¹¹ 독재체제의 권력구조는 대중의 지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제재의 고통을 대중에게 비교적 쉽게 전가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불만이 사회적 압력으로 응축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고자 가해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제재로 인한 시장 활동 위축으로 인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시장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오히려 억누르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낳고 있다.¹²

비우호적 국제 정세와 제재 무용론

이러한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과 함께 최근 대북제재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는 데에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북제재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북제재는 주로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은 북한과 별다른 경제 교류가 없어 제재국으로서의 역할

8 [한반도 포커스] 김정은, 공장은 건설해준다...운영 못하면 '좌악', SBS 뉴스 (2024.03.0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55960>
9 북한 내부 주민과의 BBC 독점 비밀 인터뷰 '식량 부족해 이웃들 굶어 죽어', BBC 코리아 (2023.06.15.),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3e4v9lmvro>>
10 [단독] 서해 NLL 탈북 가족, '북한 극심한 식량난에 인육 취식 소문', BBC 코리아 (2023.06.13.), <<https://www.bbc.com/korean/news-65857970>>
11 Ang, Adrian U-jin and Dursun Peksen, "When Do Economic Sanctions Work? Asymmetric Perceptions, Issue Salience, and Outcom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60, No. 1, 2007, pp. 135-145. (나호선, 차장훈 (2020), "제재이론과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연구 제 35 권 1호, 51. 재인용)
12 앞의 글, 70-72.

은 제한적이다. 반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은 북한의 대부분의 대외 교역을 의지하고 있는 우방으로서 실제적인 제재의 중심 국가이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핵보유를 원하는 입장은 아니다. 북한의 핵보유국화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동아시아의 핵도미노 현상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6-17년 북한이 3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진행하자 중국과 러시아도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동참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와는 국제정세가 상당히 달라졌다. 러시아는 러우전쟁을 일으키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고, 중국은 장기간에 걸쳐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적절한 압력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전면적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영역에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에는 북러 관계 밀착 속에서 양국 간 무기 거래와 기술 거래 의혹이 불거지는 등 직접적인 제재 무력화 가능성도 높아졌다. 북한의 군사 활동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제재도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한 건도 채택되지 못했다.¹³ 북한이 곤란을 겪고 있는 외화벌이 측면에서도 양국은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다. 2018년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과 관광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약 3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중국인들이 2019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최근에는 북러 관계 밀착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해외 북한 관광이 올 3월 러시아에서부터 재개되었다.

북한이 양국의 비호와 눈가림 속에 추가적인 제재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외화와 자재, 기술들을 확보하는 일이 수월해진 것은 분명하다. 이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북제재의 실제적인 키(Key)를 중국과 러시아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펼쳐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13 北 도발에도 힘 잃는 대북제재... "6년간 안보리 신규 결의 없어", 연합뉴스 (2024.03.17.),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7021200073>>

현재의 구도를 비틀어본다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북한?

다만 대북제재를 효과 없음으로 결론내기에는 선부르다. 제재가 북한 경제에 큰 압력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효과가 단시일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적되어 임계점을 지나면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절대적인 외화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재로 인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무리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핵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기란 분명 벅찬 일이다.

현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우호적 국제 정세가 조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도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북중러 관계는 구 공산권과 같은 이념적 블록이나 동맹 관계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의 존재에 따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 결집한 상태인 만큼 그 결속력이나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¹⁴ 미국과 중국은 공급망 재편과 디리스킹 전략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냉전시기와 같은 단절이 아닌 경제적으로 여전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러 관계 밀착에 대해서 중국은 오히려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직접적으로 얽히기를 피하는 등 북중러 연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¹⁵ 신냉전 논쟁을 촉발시킨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쟁이 어떤 모양으로든 종식이 된다면, 또한 미중 관계가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어떤 지점에서 안정을 찾는다면, 국제 정세가 또 어떤 구도로 변화할지 모른다. 이 외에도 11월에 있을 미 대선 등 국제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가 있다. 북한 지도층 입장에서는 제재 회피에 용이하고 미국과의 외교전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이 신냉전 구도가 과거 구(舊) 냉전과 같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북한 당국이 현재의 국제 구도가 유지되는 동

14 Won Gon Park (2023), "North Korea's Outlook on the New Cold War", Global NK Zoom & Commentary (2023.03.09.), <<https://www.globalnk.org/commentary/view?cd=COM000109>>

15 이동규, 김지연 (2023), "북러 군사밀착과 중국: 북중러 3각 연대로 나아가는가?", 아산정책연구소 이슈브리프 2023-29, <<https://www.asaninst.org/contents/북러-군사밀착과-중국-북중러-3각-연대로-나아가는가/>>



〈최근 김정은의 지시로 철거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통일 원칙을 상징하고, 아버지 김정일 전 위원장이 건축한 상징물을 철거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 속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숨은 의도를 풀이해본다. 북한 당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존의 제재를 회피 또는 무력화하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지금이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핵보유국으로의 인정을 얻

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모습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선택하고 있다. 최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선조의 유훈까지 해쳐가며 북한은 남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노선의 전환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남한을 볼모로 삼아 미국을 압박하는, 사활을 건 적극적 공세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등 더욱 과감한 조치를 감행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최근 수년 동안 북한 핵문제나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하여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지만, 향후 머지않아 대화나 협상이든, 아니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군사적 충돌이든, 대북 제재와 북한 핵문제가 다시금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요청되는 지점이다.

우리의 기도

북한을 비롯한 각국의 지도자들과 의사결정자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판단과 전략을 선택하겠지만, 우리는 한반도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무릎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북한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예상되는 군사 도발이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등의 우려가 크다. 현재의 긴장이 피 흘림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대북제재와 북한 핵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때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진전과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주민들의 안위와 민생을 위해 기도하자. 수년간의 제재와 북한 당국의 피해 전가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히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는 것으로 우려되는 소외 지역의 취약 계층을 위해서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 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북한이 자신의 전략을 위해 포기한 통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까워 올 것을 기대하며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에 더욱 힘쓰자. 세상 어떤 권세도 주님의 뜻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한반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전망

양운철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강서대학교 초빙교수)

2023년 10월 14일, 미국의 소리(VOA)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1천개 분량의 탄약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를 받으려는 것 같다는 보도를 했다. 증거로서 북한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약 300개가 적재된 사진도 공개했다. 며칠 후 이 컨테이너를 실은 러시아 선박이 러시아의 두나이 항에 정박하고, 이후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90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티호레츠크 탄약고로 이동하는 사진도 공개했다.¹ 관련해서 2024년 2월 23일,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강력한 제재를 러시아에 부과했다. 특히, 러시아 야당 지도자였던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도 대러시아 제재의 한 원인이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 담당 부서인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약 500개 이상의 러시아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한국에 석탄을 공급해 온 러시아 기업도 포함하여, 한국과 많은 거래를 해 온 러시아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²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한국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처럼 간접적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도 한국에 영향을 주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정세 동향 변화에 대해 항상 주목해야 한다.

1 VOA, 백악관 “북한,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개 분량’ 군사장비·탄약 제공” 2023년 10월 14일. www.voakorea.com/a/7310060.html

2 Yulchon Legal Update,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강화, 한국 기업과 협업하던 러시아 기업들도 제재대상에 추가,” 2024년 2월.

1. 경제제재의 목표와 적용 여부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압박이다. 보다 엄밀하게 정의하면 경제제재는 제재를 가하는 국가(sender state)가 제재 대상국(target state)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제로 제재 대상국의 경제 자원을 억류, 몰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재국가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금융제한, 재산압수와 같은 다양한 경제력 압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제재의 많은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Hufbauer, Schott, Elliot and Oegg의 2007년도 연구에 의하면, 경제제재의 최종 목적이 정권 교체일 경우, 경제제재의 성공률은 불과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제재의 목표도 대부분 제재 대상국의 지도자나 관련 개인, 특정기관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할 경우, 제재국인 미국은 제재 대상국인 북한 그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재국은 경제제재의 최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나폴레옹 시대까지는 무역봉쇄가 가장 주요한 제재 수단이었다. 나폴레옹 시대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무역이 중단되었고, 곡물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던 영국의 곡물 가격은 급등하였다. 문제는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급자족을 위해 생산성이 낮은 국내 일부 토지에서 생산되던 비싼 곡물이 생산, 유통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당시 귀족계급인 대지주들의 반대로, 전쟁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랑스 곡물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대지주 계급을 위한 곡물조례법(Corn Law)은 전쟁 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독점 또는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알려진 렌트 문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제재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사회정치적인 문제로 치부되던 경제제재는 20세기에 들어서서 적극적



〈23년 10월 미 백악관이 공개한 북러 무기거래 정황자료에 실린 북한 나진항에 적재된 컨테이너의 위성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 컨테이너들은 해상을 통해 러시아로 옮겨졌으며, 이후 열차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인접한 티호레츠크 탄약고로 이송되었다.〉

인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진화되었다. 일례로, 1960년 쿠바 혁명 직후, 카스트로 정부가 미국이 투자한 3개 정유회사를 국유화하자,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쿠바와 외교관계를 단절했고, 1963년에는 쿠바 자산동결규정(Cuban Assets Control Regulations)을 발표하고 경제제재를 시작했다. 이후 계속 악화되었던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쿠바 간의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하면서, 양국 관계는 화해 모드로 돌아섰다. 결정적으로는,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이 쿠바에 식량과 인도주의 제품 판매를 승인하면서 개선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여러 현안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지만, 양국의 경제 교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시행과 해제까지의 일련의 사건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이해와 해결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른바 1992년 통과된 쿠바민주주의법(Cuban Democracy Act)은 미국의 쿠바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주 내용은, 첫째로는 쿠바를 지원하는 국가들에게는 미국은 동일한 액수의 지원을 하지 않으며, 둘째로는 쿠바의 민주화를 위해 일반 주민을 상대로 송금, 통신허용, 우편 서비스 등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 조치였다. 이는 쿠바 국민들이 카스트로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포함되었다. 첫 번째 조치에 대해, EU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이 법이 국제무역 협약 위반이라고 비난했지만, 1992년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쿠바 민주주의법이 통과된 후에도, 오랫동안 쿠바의 정치적 변화는 미약했지만, 현재는 쿠바의 정치적 독재가 많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국가정책에서 원형적인 사회주의 및 계획경제 원칙이 완화되면서, 쿠바도 새로운 변화기를 맞고 있다.

2. 미국과 UN의 대북 경제제재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첫 경제제재로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1949)을 적용했다. 같은 해 12월 17일,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되자, 미국은 가장 강력한 제재법이라 할 수 있는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 1917)을 북한과 중국에 적

용했다. 적성국교역법을 적용하여, 북한은 최혜국(MFN)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추가로 북한에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1961)이 적용되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대외원조를 받을 수가 없으며, 통상법(Trade Act: 1974)에 따라 최혜국의 지위도 거부되어 일반관세특혜(GSP)의 부여도 금지된다. 한국전쟁 후, 불과 몇 개의 경제제재 관련법이 북한에 적용되었지만, 그 파장은 매우 컸다. 북한은 미국은 물론 다른 미국의 우방들과의 경제협력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소련을 포함한 다수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동서 냉전의 양상도 화해 협력 분위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러시아, 중국과 수교도 하게 되었다. 반면 북한은 더욱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에 대한 국력 열세로 남북 관계개선을 원하지 않았고, 생존과 적화 통일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다. 북한의 야망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표출되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김씨 세습국가를 지양하는 북한으로서는 독재 정권 유지와 군사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였다. 군사력 강화를 위해 북한은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도 동반해서 상당히 강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UN)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9차례의 경제제재를 결의, 시행해왔다. 회원국들 간의 이견도 있었지만,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의안 1718호를 결의했다. 경제제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1)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선박은 중지하여 대량살상무기가 선적되었는지를 검사받아야하며, (2)대북제재위원회에서 확인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3)UN 회원국들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직원과 그 가족의 해외여행을 금지하며, (4)UN 회원국의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결의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감행했다. 병행하여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졌다.

3. 경제제재의 효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제재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북한이 공해상에서 석탄을 판매하는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북한 선박의 실시간 추적 장치(transponder)를 조회한다. 문제는 북한 선박이 이 장치를 끄고 운항하며, 선원들은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의 실제 위치를 거래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활용했다. 일부 선박의 경우, 위성 촬영을 회피하기 선박의 측면을 개조하거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적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북한이 불법적으로 제재 단속을 회피하자 미국은 새로운 방식을 사용했다. 미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에서도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력과 결합된 미국의 금융 기반은 모든 국가에 대해서 포괄적 제재가 가능하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으로 알려진 3자를 통한 경제제재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 특정 부문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제재(smart sanction)나 족집게 제재(targeted sanction)는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catch-all 제재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수단은 금융제재이다. 대북 금융제재는 제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그 시작은 마카오에 위치한 방코델타아시아은행(Banco Delta Asia: BDA) 사건이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BDA는 약 20년간 평양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 왔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 조달의 총당과 관련하여 조사하다가, BDA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한다. 당시 북한의 자금 출처는 분명하지 않지만 미국 달러화 위폐 판매, 마약 밀매, 불법적 담배 판매 등이 주 수입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BDA를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거래 위험성을 알리는 주의보를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했다. 거래은행들에게 주의와 위험을 경고한지 불과 하루 만에 은행예금의 1/3이 인출되는뱅크런(bank run) 현상이 발생했다. 마카오 정부는 부도방지를 위해 즉시 BDA 계좌를 동결하였다. 당시 약 2,700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예금도 동결되었다. BDA는 오랫동안 거의 은행 역할을 못하다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BDA 사례의 경우, 북한 예금 2,700만 달러는 마카오 정부의 계좌 동결로 인한 것이다. 물론 은행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있었겠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법의 경우, 행정부는 자국에서 발생한 금융 불법행위와 관련한 자금은 몰수할 수 있지만, 타국에서 발생한 자금은 몰수할 수가 없다. 약 15년의 시간이 흐른 후, BDA는 동결된 북한 예금 2,700만 달러를 자금을 미국 뉴욕 연방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북한계좌로 이체했다. 이 후, 북한은 중단되었던 6자회담에 복귀하게 되었다. BDA 사건을 통해, 미국은 그 어떤 제재 수단보다도 금융제재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반면 BDA 사태에서 보듯, 금융제재가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예상과 다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경제제재의 최종목표를 정권 교체보다는 잘못된 행위를 예방하는데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7일 파나마 선적 뉴리젠트(NEW REGENT)호와 북한 유조선 금운산(KUM UN SAN) 3호가 호스를 사용해 환적하고 있다.〉

4. 향후 전망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그 효과는 제재국의 비협조, 자국 이익 우선, 제재 대상국의 교묘한 회피 행위 등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북한은 경제제재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중국과 가장 무역이 활발하던 2016년 최고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지만, 러시아가 매년 약 3,200억 달러에 상당한 원유를 수출하기 때문에 경제제재에서 오는 압박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와 달리 자본이 부족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계속 제재를 받는다면, 한시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충격이 누적되면 국가의 경제운용도 매우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 본다. 🙏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향후 전망

김 규 철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

2006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에도 북한은 총 6번의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대북제재는 UN 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 외에도 국가별 독자 제재로도 지속되어 왔다. 2016년 이전의 대북제재는 핵 물질 및 미사일 등 무기와 관련된 품목의 도입을 금지시키는 것과 북한의 고위층이 소비하는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이에 2016년 이전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바뀌게 된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연말까지 2년이 안 되는 기간동안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하여 핵무기를 고도화하였고,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하였다. 이에 국제사회는 무기 및 사치품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이후 결의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 철광석, 임가공 의류 등을 금수조치하여 북한 수출의 90% 정도를 옥죄었다. 또한, 유류제품의 수입 상한선을 설정하고, 기계 등 산업 중간재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북한의 산업 생산에도 타격을 주는 제재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외화 수급 통로인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시켰으며, 북한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러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는 효과가 있었을까?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수행한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당국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대북제재는 아직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핵 포기라는 최종 목표의 중간 과정으로써,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실제로 타격을 주었는지, 대북제재로 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 수급이 차단되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재의 경제적 타격이 지속되면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정책을 바꿀 것인지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대북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제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논쟁적이었다.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아닌 대북제재 해제였다. 그동안의 협상에서 북한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체제 보장이었는데, 이에 앞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증거 외에도 대북제재의 직접적 타격이었던 북한의 무역이 제재의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제재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수출 규모는 90%나 줄었고, 수입 역시 1/3이 줄어들었다. 또한,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통해서도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을 통해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였다. 우선, 대북제재 이후(2018-2019년)에도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가격이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북한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전문 매체에 따르면 제재 이후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후속 연구¹를 통해 반박되었다. 우선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제재

¹ Kim et al (2023), 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한국은행 추정 북한경제성장률. 대북제재가 본격화 된 17년 이후 북한은 역성장을 기록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품목과 제재와 무관한 품목으로 구분하여 가격 추세를 살펴보면, 석탄이나 전자기기와 같이 제재 대상 품목의 가격은 제재 전후로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다만 쌀과 같이 제재와 무관한 품목의 가격이 유지된 것으로, 이는 쌀과 같이 제재와 무관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통해 제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대북제재의 취지는 북한 당국의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되 북한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북

한 주민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곡물, 식료품 등의 품목은 수입제재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제재 이후에도 해당 품목의 수입은 지속된 바 있다. 게다가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재 직후 북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여러 데이터와 정황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 거시경제 전반, 장마당에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의 경제적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북제재 직후에는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 않다고 보도되었으나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재로 무연탄과 임가공 의류가 해외로 수출되지 않으면, 무연탄을 캐던 광부들과 의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고, 기계류 수입 금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설비가 마모되고 노후화되었음에도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없어 북한의 산업 생산은 활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될 것이며, 결국 북한 주민의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북제재의 경제적 충격의 전이 가능성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타격을 입혔다면, 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가? 다시 말해, 대북제재의 경제적 실효성은 왜 안보·외교적 실효성으로 전이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아직 대북

제재의 경제적 영향력이 핵을 포기할 만큼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에 가해진 제재의 경제적 압박이 강력하긴 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당국이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약해져 핵을 포기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애초에 중국의 반대로 원유 도입 금지 등 북한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의 석유제품 밀수는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제재가 금지한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암호화폐 탈취, 어업권 거래 등의 불법 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어 제재의 구멍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단둥시처럼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는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북한과의 경제적,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 요원해보인다. 이처럼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난관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북한 당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권 안보이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차순위로 미룰 수 있는 권위주의 국가라는 점이다.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인들이 경제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정당성은 북한 주민들의 투표가 아닌 백두혈통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게 된다. 물론 북한 당국도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통한 주민 후생 증대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한 체제 안보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북한 당국은 후자를 선택해왔다.

외부 세계는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시위 등을 통해 체제에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을 궁금해한다. 북한 주민은 어릴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는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 체제는 지도자를 넘어서 ‘아버지’ 수령으로 인식된다. 북한 당국은 ‘우리의 경제적 난관(지도층의 잘못이 아닌) 미제의 압박 때문’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아무리 집안 사정이 어려워도 부모를 닮지 않는 것처럼, 외부 세력이 우리를 어렵게 할수록 결사적으로 아버지 수령을 옹위해야



〈대북제재 배경을 외치는 북한 선전화〉

한다고 세뇌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주민 간 상호 감시, 반기 세력에 대한 숙청 및 연좌제 등으로 공포심을 주입하고 있어 북한 내부에서 시위 등 소요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 위기 당시 수십만의 아사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체제 전복 등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세습독재 체제에서 사상 교육과 폭압 정치를 통해 북한 주민을 통치하고 있어 제재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을 주민의 민생보다 우선시하고 있어 제재의 경제적 충격은 다음 단계로 발전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과 우리의 기도

그렇다면 향후 대북제재는 어떻게 될까? 북한이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대북제재를 폐기해야 할까? 현 상황에서 대북제재 무용론 혹은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다. 대북제재가 만능이라고 보는 것 역시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다만 대북제재는 북한 당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복귀하게 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여전히 의미가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 느슨해진 대북제재의 틈을 수리하고 새로운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여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제재를 회피하여 외화 수급을 극대화하려는 북한 당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을 통한 밀수를 적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북한 해커 조직에 대한 제재와 이들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는 등의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재로 금지되었음에도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취업 제한 조치 역시 이루어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기업을 2차 제재(secondary boycott)하여 해당 기업의 상품을 국제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북제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제재로 북한 수출이 제한되면,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북한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줄어들면 곡물, 식료품 등 주민의 식량 수입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제재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수반된다. 이를 감안하여 현재 결의된 대북제재 방안 중 일부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제재 완화의 명분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우려이며, 대북제재의 전반적인 틀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 이전에도 북한은 식량부족 국가였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이 상황은 더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살피 북한의 핵·미사일과는 무관하지만 북한 주민의 식량 문제와 직결된 제재 중 일부는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재는 북한의 기계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트랙터 등 북한의 식량 생산과 직결된 품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인도주의 지원을 허용하는 대북제재 정신과도 일치하며, 북한 당국을 협상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최근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를 둘러보면 대북제재를 포함하여 북한 문제 해결에 호의적이지 않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질서가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블록화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무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 이에 대북제재의 실효성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필자는 북한을 연구할수록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어떤 정부는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했고, 어떤 정부는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바꿔보려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문제는 풀리지 않았으며, 이를 둘러싼 환경도 점차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것만 같다. 남한 내 국민들의 대북·통일인식은 부정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 역시 뒷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께서 한반도 주변 상황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바꾸실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만반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충실히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라 믿는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요 17:4)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필자는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북한 땅의 수많은 사람의 고난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북한 주민들에게 구원의 날이 속히 임하길 기도한다.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전망

문 경 연 교수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들어가며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전에 채택된 유엔의 대북제재가 정치적 수사 차원의 느슨한 제재였다면, 3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 고도화와 함께 유엔의 대북제재의 강도는 더욱 강해졌으며, 2016년 9월 강행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유엔의 대북제재에 불참해 왔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하는 형태를 띠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제재를 부과함에 있어 해당 제재가 일반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에서 제재의 대상을 문제를 유발한 개인이나 단체로 구체화하는 스마트제재의 형태를 취하거나, 제재 하에서도 일반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허용해 왔다. 무엇보다도 1999년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위원회를 통해 제재가 일반주민들의 인도주의 상황에 미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비의도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대북제재가 채택된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가 어떠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실시한 바 없다. 즉, 대북제재가 의도했던 1차적 목적 즉 비핵화에 기여했는가? 이러한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위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아닌가? 등에 대한 고찰이 부재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사색적 고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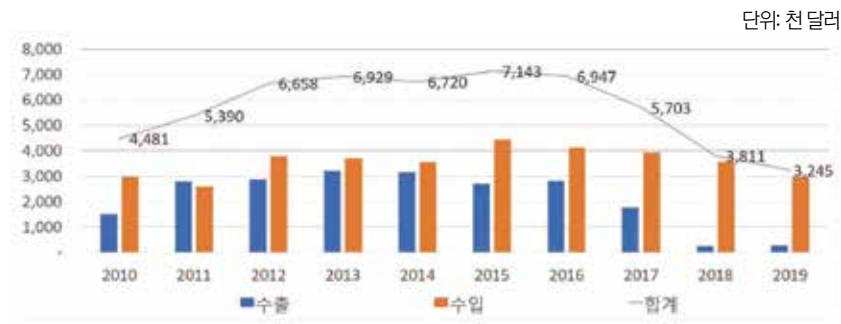
제재 성공의 핵심요소와 실제

제재는 국제사회가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해 온 정책 수단이다. 특히 대상국의 행동 변화를 강제하는 수단으로써 경제제재는 군사적 조치보다 비용이 적게 발생하며, 국내 및 국제무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승인절차상의 부담이 적고, 무력사용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같은 인도주의적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요 외교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가 대상국가의 행동 및 정책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으나, 첫째 제재 누수현상(leaking)의 최소화, 즉 국제사회 모두가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이탈자가 없어야 하며, 둘째, 제재의 영역이 실질적으로 제재대상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분야여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유엔의 주요 대북제재 결의 경과〉

북한 도발	UN 대북제재	주요 내용	특징
1차 핵실험 (2006.10.9.)	결의 1718호 (2006.10.14.)	금수조치 및 화물검색, 제재대상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통제	-
2차 핵실험 (2009.5.25)	결의 1874호 (2009.6.12.)	금수조치 확대, 화물검색 구체화, 자산동결 및 여행통제 대상 확대	-
3차 핵실험 (2013.2.12.)	결의 2094호 (2013.3.7.)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 금지	금융거래 포함
4차 핵실험 (2016.1.6.)	결의 2270호 (2016.3.2.)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 및 북한의 석탄 수출을 차단	최초로 북한산 석탄 수출 차단
5차 핵실험 (2016.9.9.)	결의 2321호 (2016.11.30.)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약 8억불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	중국, 러시아 동참/ Bulk cash 이전금지의무 재강조
IRBM 미사일발사 (2017.5.29.)	결의 2356호 (2017.6.2.)	결의 2321호에 북한 기관 및 단체 4곳, 개인 14명을 '블랙리스트(제재 대상목록)'에 추가	미국-중국 공동 추진/ 대북 원유공급 금지는 제외
ICBM 미사일발사 (2017.7.4.)	결의 2371호 (2017.8.5.)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로 북한 수출액의 1/3 차단 및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 중단	중국과 러시아 포함 만장 일치/ 원유공급 금지는 제외

〈북한의 수출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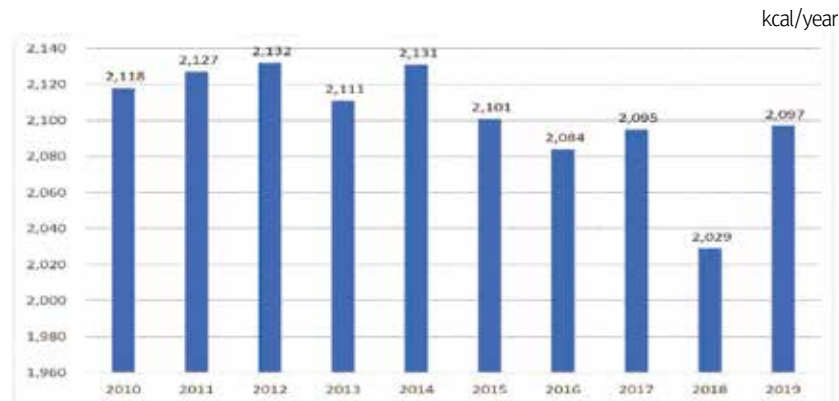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¹⁾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대북제재에 적용하면 기존의 대북제재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았던 요소를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이탈자를 자처하다가 2016년 5차 핵실험부터는 이 두 국가 역시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국이 조성되었다. 문제는 이들 북한의 최우방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동참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례로, 중국은 2018년 16만 2천 톤, 2019년 9만 3천 톤에 달하는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였고, 이러한 무상지원의 증가와 함께 북한의 對 중국 비료 수입규모는 2018년 4만 3천 톤, 2019년 5천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식량 역시 제재 동참 전인 2015년 2천 4백만 달러(약 5만 톤 미만 수준), 2016년 2천 8백만 달러(약 5만 톤 초과 수준)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6천 5백만 달러, 2018년 9천만 달러, 2019년 1억 5천 4백만 달러 수준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즉,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부과 시점에 형식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양을 취하였으나, 실제로 여러 지표는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는 이탈자로서 역할을 지속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북제재의 핵심 경제제재이고 이러한 경제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 경제적 교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북한의 경제가 무역과 같이 국제사회와 재화교류의 빈도와 규모가 높을수록 제재의 효과가 크다는 것인데,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은 자력갱생의 경제원칙 하에 국제경제 의존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경제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에 대한 타격은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수출입액〉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1 북한무역 무역협회의 북한무역 통계: (searched date : 2. May 2021)

〈북한의 식량공급 추이(Kcal/per capita/day)〉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Food supply per capita)

2010년 총 4백만 달러 규모는 2015년 7백만 달러 규모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2019년 기준 3백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6년의 강해진 대북제재의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이 수치 자체가 북한 경제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친 영향을 미미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대북제재와 인도주의 상황

문제는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 상황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대북제재 이탈이 북한에 대한 식량 및 비료지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면제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핵개발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인도적 지원의 중단으로 이어진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식량 및 비료 지원은 북한 주민 및 당국에 있어서 생명 유지의 수단과도 같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증명하듯 북한의 1인당 식량배급 추이는 2014년 이래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이는 대북제재가 강경해진 전후시기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나가며

앞서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시론적 고찰에서 여러 지표상으로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 상황에 심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는 강경해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탈자로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왔으며, 북한의 경제 자체가 국제경제 편입도가 낮아 제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구조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제재 부과시 대상국가의 경제 및 식량지표가 변화하는 양상과 달리 북한의 해당 지표는 다른 변동성을 보인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북한의 통계조작 상황도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관련 많은 국제기구 및 국제 NGOs가 내놓는 북한내부 상황이 1990년대 말 3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시기와 비슷하다는 우려이다. 실제로 UN FAO의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수와 유병율’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2010~2012년 940만 명에서 2011~2013년 960만 명 수준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3년 이후부터 뚜렷해지기 시작하여, 2018~2020년에 들어 1,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북제재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간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또 한편으로 작금의 북한 인도주의 상황관련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불편한 수치들을 간과해서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

탈북민 수기 : 손이슬 자매

제 1화

“나였다면 살아낼 수 있었을까?”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질문이다. 북한에 살면서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셨다. 부모님께서 지하에 어떤 비밀 조직을 만드셨거나 예배 모임을 가지셨는지는 잘 모른다. 부모님께서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성인이 될 즈음부터 아버지는 보통의 북한 사람이라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예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다. 그 때는 그분들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서야 돌이켜보니 나의 인생이 그분들의 기도의 바탕위에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억압된 땅에서 신앙을, 인생을 살아내셨을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을지 나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우리 부모님은 북조선에서 흔히 ‘짜포’라 불리는 재일교포이시다. 어머니는 7살 때, 아버지

는 18살 때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하셨다. 아버지의 가족은 본래 대구가 고향이셨다고 한다. 1930년대 즈음 할아버지께서는 생계가 너무 어려워 일본행을 선택하셨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많은 차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해방을 맞고 북한과 조총련의 대대적인 선전을 들으며 할아버지는 자식인 아버지를 대학 보내시려고 딸 둘만 일본에 남겨두고 이주하셨다. 안타깝게도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목도한 현실은 알려진 바와는 전혀 달랐다. 북한과 일본은 생활수준이 크게 차이가 났고, 감시도 심했고, 약속했던 혜택도 없었다. 아버지의 대학 진학도 성분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았다. 할아버지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병을 얻으셨고, 북한으로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와 비슷하게 북한과 조총련의 선전을 믿고 가족 모두 북으로 이주하셨다. 재일교포들은 처음 북한에 오면 다들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어느 집이나 사정이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래도 누나들이 일본에 있었던 아버지는 일본으로부터의 도움 덕분에 어머니네 보다는 그나마 형편이 좋으셨던 것 같다.



〈1959년 12월 14일 일본 니가타항에서 출항하는 첫 북송선 (사진=마이니치신문)〉

아버지와 어머니는 80년대 어느 날 원산에서 처음 만나셨다. 당시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다. 아버지는 대학의 꿈을 접고 배급이 잘 나오는 바닷일을 하셨다. 그런데 일을 하던 도중 한 재일교포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일이 발생했고, 그때부터 재일교포들은 배에서 내리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배를 타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는 다시금 대학의 꿈에 도전해야겠다고 결심하셨다. 물론 재일교포에게 대학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철저한 성분제 사회인 북한에서 아버지는 재일교포라는 나쁜 성분을 극복하기 위해 군을 돌파구로 삼으셨다. 군대도 성분이 나쁘면 현역으로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청년돌격대 활동을 하시면서 10년의 복무기간 동안 온갖 건설 현장에서 고생하셔서 겨우 당원이 되셨고, 이를 통해 어렵사리 대학에 진학하실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서 일하시게 된 아버지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 또 일본의 친척들도 종종 도움을 주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시게 된 때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원산에서 처음 아버지를 보신 어머니는

첫 눈에 반하셨다고 한다. 두 분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셨고 서로 사는 지역도 상당히 멀었지만, 어머니의 적극적인 구애와 편지 왕래를 통해 결혼에 골인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왠지 조금 편향된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어머니는 조심성이 매우 강하셔서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두 분은 결혼해서 오빠와 나를 낳으셨다.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다. 비록 일본에서 고모들이 보내온 도움의 대부분은 북한당국이 가져가버렸지만, 뺏기고 남은 나머지만으로도 우리는 주변에 비해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 일본의 고모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신들이 보내준 이불을 쓰고 있는 우리 집을 보시고는 왜 이불이 이것밖에 없냐고 하셨다고 한다. 알고 봤더니 고모들이 이불을 보낸 것이 100장이라고 한다면, 그 중 약 80장은 다 중간에서 갈취당하고 20장도 안 되게 우리 손으로 들어왔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일본에 직계 친척은 남아있지 않으셨지만, 친언니들이 북에서 만나 결혼한 같은 재일교포 형부들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조금씩 도움을 받으셨다. ‘까치는 까치끼리’라는 말처럼 감시를 받고 차별 받는 같은 처지의 재일 동포들끼리 만나고 결혼하는 일이 흔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차별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지만, 어린 시절 나는 부모님의 성실한 보살핌과 나름대로 부족함 없는 집안 살림 속에서 차별이나 부당함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다. 또 다행히 우리

가족은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손아바이’하며 좋아했고 선생님들도 나를 예뻐해 주셨다. 물론 뒤에서 속덕속덕하며 ‘째포째포’ 거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친구들에게 가서 “째포가 아니라 재일동포다. 알고나 써라!”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만큼 당당하게 살았다.

억압된 북한에서의 삶이지만 나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었다. 어린 생각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친구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내 특기는 음악이었다. 4살 때부터 손풍금을 타서 웬만한 노래 반주는 다 손풍금으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악기 실력을 가지고 군에 입대해서 악기 연주를 하고, 제대 군인이 돼서 입당을 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직장 배치도 잘 받고 나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악기 연습에 매진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비닐 케이스를 풍금에 씌어 메고, 소년회관까지 2-30분을 걸어가 밤 8시까지 연습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숙제까지 열심히 다 해내곤 했다.

그렇게 꿈과 희망에 찬 하루하루를 살았던 나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의 들려왔다.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빗더미 위에 올라앉은 것이다. 은행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지역 당 비서와 함께 의논하여 북한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인 사업가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그 사업가가 돈을 갚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은행은 국영 은행이고,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에게는 대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중국인 사업가와 의 관계(판시) 때문에 당 비서가 논의하여 함께 벌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 당 비서는 책임을 회피했고, 결국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지셔야 했다.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어머니께서 한탄하시던 소리,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이모들 집에 돈을 빌리러 다니시던 기억은 생생하다. 그 일 하나뿐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그 외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몇 건의 사기를 당하셨고, 조금 과장을 보태어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오빠랑 나까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족했던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나의 꿈도 빛을 잃었다. 집안 형편 때문에 풍금도 팔아야 했다. 풍금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곳저곳에서 반주도 하고 풍금을 대신해서 기타를 배우기도 했지만,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시던 부모님께서 이제는 여력이 없으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상심이 되었다. 공부에 대한 의욕도 잃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던 꿈도 접고 졸업하면 일부러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부터였다. 그 때부터 아버지는 나에게 예수니 성경이니 하는 말을 하시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가 왠 반동같은 소리를 하신다고 생각해 해주시는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무섭기만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말쑤를 하셔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 아버지는 성경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북한 밖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며 이곳에 있지 말고 빨리 떠나라고 강권하셨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이 탈북의 주요 동기이기는 했지만, 무슨 종교니 신앙이니 하는 말은 접어두더라도 이미 인생의 경

로가 꼬여버렸다고 생각해 낙담해 있던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바깥세상으로 마음이 쏠렸다. 어느 날에는 나도 모르게 일기장에 “탈출”이라는 글을 썼다가 나중에 화들짝 놀라서 누가 보지 못하게 불태워버리기도 했다.

급변한 집안 환경과 마음의 고민 때문이었을까... 졸업할 때가 되자 갑작스런 피부염증으로 얼굴을 제외한 피부에 좁쌀만 한 고름들이 차기 시작해서 손바닥만 한 고름으로 커졌다. 결국 거의 한 학기를 수업을 가지 못하였다. 다행히 담임 선생님께서 평상시 학업에 성실했던 내 모습을 감안하셔서 성적은 그럭저럭 받았지만 이번에는 갑자기 위에서 내 나이대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못보게 하고, 한 학년이지만 한 살 아래인 학생들만 대학에 입학하게 하는 내용의 지침이 떨어졌다. 대학 갈 사람은 내년에 따로 시험을 보라고 했다.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공부나 음악으로 성공할 꿈을 거의 접은 상태였던 지라 차라리 잘 된 일이라 생각했다.

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긴장되는 일이지만 특히 북한에서는 어디로 배치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좋은 직장이라 함은 일이 고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벌이가 좋아야 할 것이다. 시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북한에서 직장에서 받는 배급이야 도토리 키 재기 수준이지만, 일을 통해 부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때마침 우리 지역을 지나는 기차 운행이 늘어나게 되면서 더 많은 승무원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보통 한 학급에서 많아야 한두 명이 배치 받곤 했는데, 올해는 우리 학급에서 무려 8명의 학생들이 걸려 승무원으로 배치가 되



〈북한의 기차 승무원〉

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 중에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기차 승무원이 되고나서 보니 이게 바로 꿀 직업이었다. 나라에서 받는 급여는 보잘 것 없었지만, 기차를 타고 다니며 자연스럽게 지역을 옮겨가며 장사를 하거나 짐을 대신 맡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는 등 여러 돈벌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어떤 이들은 뇌물을 내면서까지 이 직장으로 오고 싶어 했다. 몇 년 만 여기서 일을 하면 결혼 밀천을 장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단체로 무리배치가 되면 보통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곳으로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배치 전에는 걱정이 참 많았다. 가족들도 걱정하시며 지인을 통해 좋은 곳에 배치를 받도록 해볼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참으로 다행이었다.

물론 집을 장기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힘들고 고단한 일이었다. 당시 북한의 사정상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며칠을 기차가 운행하지 못하고 그저 역에 머무르는 일도 많았다. 사고도 많이 났다. 그러다보니 아버지께서는 내가 일을 나갈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하셨다. 아버지는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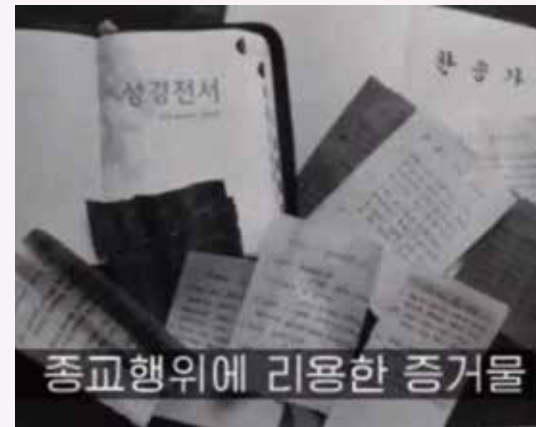
가 운행을 나가면 집에 있는 전화로 열차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수시로 확인하셨다고 한다. 이제와 그 때를 돌이켜볼 때 직장 배치에서부터 그 모든 여정에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셨음을 느낀다. 당시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실 때마다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나’하며 꺼려했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마음 졸이며 딸을 위해 기도하셨을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는 지금은 조금이나마 알 것만 같다.

이전에 언급했던 은행 대출 사건은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내가 사회로 나가게 된 그 시점에도 끝나지 않았다.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개인 대출에 대한 처벌로 재판과 수감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연로하신 아버지는 뇌출혈로 인한 마비라는 병명으로 병보석을 신청했다. 실제로는 이러한 병은 없으셨지만 안전부나 보위부의 구치소나 단련대, 교화소 같은 곳에 끌려간다면 아버지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가짜 병은 어머니와 나만이 아는 우리가족의 극비 사항이었다. 심지어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오빠도 아버지의 병이 진짜인줄로만 알았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가? 병보석을 받기까지는 많은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의사들을 대동해서 진짜 몸이 마비가 된 것인지 아버지를 막 쏘시고 쳐보고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검사 과정을 보시면서 “진짜 나쁜 놈들”이라며 평생 안하던 욕을 하시기도 했다. 이러한 검사는 한번이 아닌,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자극을 주어서 몸이 움직이면 바로

병명이 거짓으로 탄로 나고 아버지는 끌려갈 뿐 아니라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러니 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가족에게 그 검사 과정이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는 일이었겠는가?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검사를 여러 차례 받으셨음에도 들키기 않고 병보석을 받으셨다. 어떻게 아버지는 극도의 통증과 자극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조금도 꿈틀하지 않으시고 참으실 수 있으셨을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마다 말이다. 그때는 그저 신기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마음이 든다.

병을 핑계로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시게 된 아버지는 집에 계시면서 나에게 더 많이 성경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일본에 계셨을 때였다고 한다. 학창 시절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접하신 것이다. 아버지는 북한 체제의 모순과 포악성에 대해 지적하시기도 했다. 아버지가 처음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하셨을 때에는 그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생존하기에 바빴었고 이 체제가 어떻게 사상이 어떤지 같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중에 당원이 되고 직장에서 일정 직위 이상 올라가시면서 점점 더 시야가 넓어지고, 곧 북한 사회의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셨다고 한다. 그럼에도 밖에서는 남들 눈에는 투철한 빨갱이처럼 보이도록 철저하게 행동하셨던 것이 우리 아버지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는 밖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8대가 멸족 당한다고 나를 입단속 시키셨다.



〈북한 국가보위성이 반종교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종교 박해 영상에 적발 물품으로 제시된 성경책과 찬송가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아버지는 세계 지도를 가리키시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이야기 식으로 해주시며, 북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종교의 창시자 중 하나로 설명하고 미제의 앞잡이로서 기독교를 악하게 묘사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뿐 아니라 북한에서 하는 선전들이 얼마나 거짓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는 나에게

남과 북의 경제력의 차이나 문화적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기도 했고, 북조선에서 바깥 세상에 대해 가르치는 많은 내용이 거짓이라고 알려주셨다. 한 번은 고모가 일본에서 보내주신 짐들 사이에 뭉개지지 말라고 넣은 종이를 보여주시며 “일본은 버리는 종이도 이렇게 좋은 종이인데 여기에서 쓰는 종이는 가장 좋은 종이를 쓴다는 김일성 김정일 얼굴이 들어간 종이도 이 버리는 종이보다 질이 못하지 않느냐”고 비교해서 말씀하시기도 했다. 내가 어릴 적에는 전혀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들이었다. 내가 성인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의문이 들 무렵이 되어서야 하나씩 풀어내신 것 같다. 안 그래도 북한에서 당원이 되고 멋지게 출세할 꿈을 포기했던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탈북을 하고 남한에 가서 성공해야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 꿈은 부모님의 지원 아래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계속) 🐼

러시아, 한국인 선교사 체포... 모스크바에 구금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선교사 백모씨의 사업장이 등록된 건물. (사진=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재인용)〉

3월 11일 러시아 타스통신은 한국 국적자가 러시아에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사법 당국 관계자는 통신에 “간첩 사건 수사를 하던 도중 한국 시민 백 모 씨를 발각해 체포했다”며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구금된 뒤 조사를 위해 모스크바로 지난달 말 이송됐다”고 했다. 통신은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백씨는 선교사로서 러시아에서 탈북민, 북한 노동자 등을 도와 왔다. 백씨는 지난 1월 중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육로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입국해 러시아에서 지내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백씨 배우자는 이후 풀려나 귀국한 상태다.

백씨는 현재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알려졌다. 러시아 법원은 체포 직후 2개월이었던 백 씨 구금 기간을 3개월 연장해 6월 15일까지 간첩 혐의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러시아는 2022년 한국이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던 이유로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어 한국 교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유엔 北인권결의안 초안, 'COI 후속 보고서' 제출 요청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후속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벨기에가 지난 3월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제출한 초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COI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제60차 (인권이사회) 회기에서 강화된 상호 대화를 이어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COI는 2013년 3월 북한 인권 문제를 규명하기 위

통일부 "북 '통일 지우기' 조용히 진행... 이념 혼란 우려한 듯“



〈북한 조선중앙TV가 1월 17일 방영한 연속참관기 '국제친선전람관을 찾아서' 프로그램 시작 화면(오른쪽)에서 한반도 북쪽 부분만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월 15일 방영분(왼쪽)에서는 한반도 전체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다.〉

북한이 작년 말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 관계로 규정한 뒤 통일이나 동족과 관련한 표현이 삭제되고 있지만 주민 혼란을 고려해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통일부의 평가가 나왔다.

북한은 대남 노선 전환 이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북남경제협력법 등 관련 법률 폐지, 애국가에서 '삼천리' 가사 변경, 평양 지하철 '통일역' 명칭에서 '통일' 삭제 등 통일·화해·동족 개념을

철저하게 지우고 있다. 심지어 김일성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까지도 제거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뿐만 아니라 부근에 설치된 김일성의 조국통일명제(命題)비까지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국가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보도나 주민 선전, 결기대회 같은 동향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통일과 동족을 강조한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일시에 부정하는 데 대한 사회 혼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통일부의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 볼 때 급격하게 선대의 업적을 삭제하는 통일 지우기는 이념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참고: 연합뉴스, 3월 21일) 🐟

해 유엔 차원에서 출범한 최초의 공식 기구로,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10년 전 보고서 발간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상황을 총망라한 후속 보고서 발간을 요청한 것이다.

초안은 작년 결의안에 새로 포함된 반동사상문 화배격법(2020년 제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2021년)과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적시하

며, 사상, 양심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북한은 해당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한국은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내달 인권이사회 55차 회기 때 채택될 전망이다. (참고: 연합뉴스, 3월 22일)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 한 달 만에 도발 재개



북한이 3월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2월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의 도발 재개다.

합참에 따르면 오전 7시 4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30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

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미디어는 김 위원장이 전날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훈련을 지도했다며 관련 영상을 보도했다. 한미 군이 KN-25로 부르는 초대형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은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연합뉴스, 3월 18-19일)

北 정제유 밀반입 의혹... 대북제재 한도 3배 규모일 수도



〈2018년 6월 7일 파나마 선적 뉴리젠트(NEW REGENT)호와 북한 유조선 금운산(KUM UN SAN) 3호가 호스를 사용해 환적하고 있다.〉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연간 반입 허용 한도인 50만 배럴의 3배 이상 되는 수치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 사이 북한 유조선들이 87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정제유를 이송했는데 이들 선박이 적재 가능 중량의 90%를 채웠다고 가정할 경우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밝혔다. 적재 가능 중량의 60%만 채웠다고 보더라도 제재 한도의 배가 넘는 101만5천588배럴이 북한으로 반입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위원회에 공식 보고된 북한의 정제유 반입 규모는 32만5천267배럴에 불과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해상 불법 환적 등과 같이 혼란스러운 기법을 쓰고 있다면서 "북한 유조선들은 예년보다 더 멀리 남쪽으로 이동해 동중국해까지 향하고 있다"며 "이례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참고: 연합뉴스, 3월 2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북한으로 반입되는 정제유 물량이 허용치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이하 위원회) 전문가패널이 3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9월 15일까지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가 최대 152만3천381배럴에 이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정은표 북한 지방공장 착공 잇따라... 김정은 "이제야 시작 자괴심에 송구"

북한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방 공업공장 착공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

설에서 내놔다.

김 위원장은 2월 28일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열린 첫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착공식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이제야 지방발전 정책의 첫 삽을 뜨게 돼서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성천군에 이어 구장군, 운산군, 연탄군, 은천군, 재령군, 동신군, 우시군, 고산군, 이천군, 함주군, 금야군, 김형직군, 장풍군 등 13개 군에서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어떤 공장이 들어서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구장군에는 식료공장, 운산군에는 고려약공장, 은천군에는 비료공장, 이천군에는 일용품공장, 함주군에는 동봉농장 등이 있어 이들 공장의 낙후한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연합뉴스 외 관련

보도 종합)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남북한의 삶, 만남, 평화 이야기

저 자: 임상순 외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년 4월 30일

가 격: 각 14,000원

오늘 소개할 책, '남북한의 삶, 만남, 평화 이야기'는 남한 학자와 북한 출신 학자가 함께 저술한 북한 이해의 기초적 지식을 담은 도서이다. 이 책은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학교 생활, 가족 생활, 문화 생활, 군 생활, 정치 생활, 직장 생활 등 여러 분야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변천과 남북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실고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통일과 북한을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그만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북한을 좀 더 쉽게 소개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그러한 집필 의도가 반영되어서인지 이 책을 읽을 때 교과시절 교과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교과서라고 하면 누군가는 지루하고 보기 싫었던 학창시절의 교과서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교과서의 존재는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 제대로 된 교과서가 없다면 그 분야를 공부함에 있어서 난이도가 대폭 상승하게 된다. 그렇지만 교

과서나 그에 준하는 책이 있다면 이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고, 자료를 찾아 이곳 저곳을 헤매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이 책의 장점은 마치 교과서처럼 일목요연하게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놓았다는 점이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닌 남한 출신 학자와 북한 출신 학자 각각 두 명씩 참여하여 쓰여졌는데, 그만큼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신뢰성도 상당히 확보되어 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참여한 책의 경우 각 학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한 분야 위주로 서술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책은 학자별 각론 없이 말 그대로 하나의 통일된 구성을 취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친절하다는 인상을 준다. 교과서스러운 구성과 내용이다 보니 어떤 생생함과 내용의 깊이는 부족할 수 있는데, 이를 북한 출신 저자와 탈북민들의 수기를 통해 보완하고자 했다.

이 책은 북한에 대하여 정치나 핵이 아닌 주민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선 교회의 필요를 생각한다면 보통의 북한 관련 서적보다 더욱 쓸모가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사역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문제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지식보다도 북한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한 기초 지식과 정보 부족을 절감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교과서적으로 설명해주는 만큼 북향민들을 이해하는 기초 지식을 쌓는데 유용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자 할 때 시작 도서로서 활용할만한 책으로 소개해본다. 🙏

북한 기도 제목

1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조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결국 북핵문제와 귀결됩니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을 얻어내고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는 북한 당국은 한반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켜서 미국을 압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의 장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계속된 무기 개발 과시 및 각종 발사 시험 등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11월에 있을 미 대선 등을 고려하여 고강도 군사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과 피흘림이 아닌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도록, 그리고 북핵 문제가 평화적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 남한을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 2국가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 온 통일에 대한 방침을 전면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한을 위협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앞으로의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대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핵전략을 위해 버려진 통일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복음적 평화 통일의 성취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고 주님께 쓰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 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김정은이 직접 지방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지방 발전 20x10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당국이 공식적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 형편이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지어지는 지방 공장의 가동과 운영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가동을 멈추는 것은 큰 죄라고 엄포를 놓고 있어 오히려 지방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강조하는 이민주의에 진정성 있게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핵과 무기가 체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민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심해지는 빈부/지역격차가 완화되고 소외된 주민들의 생존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류 미디어를 포함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태 척결을 위한 노력이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당국의 강화된 통제와 공포정치 속에 더욱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국으로 재정립한 만큼, 한류 문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도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비인간적인 억압과 통제, 그리고 과도한 형벌과 단속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의 인권이 아닌,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진정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적발사건이 보도된 데 이어 선교현장에서는 여러 건의 지하교회 적발 사건 및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사건 소식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에 대한 억류도 여

북한 기도 제목

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갇혀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 해외 북한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이 러시아 정보기관(FSB)에 의해 체포되어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 선교사는 현재 추가 조사를 위해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미결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러시아 법원은 체포 직후 2개월이었던 백 씨 구금 기간을 3개월 연장해 6월 15일까지 간첩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 사역과 탈북자 사역의 위축의 우려가 높아지던 중에 발생한 이번 체포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을 일깨워줍니다. 체포된 백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북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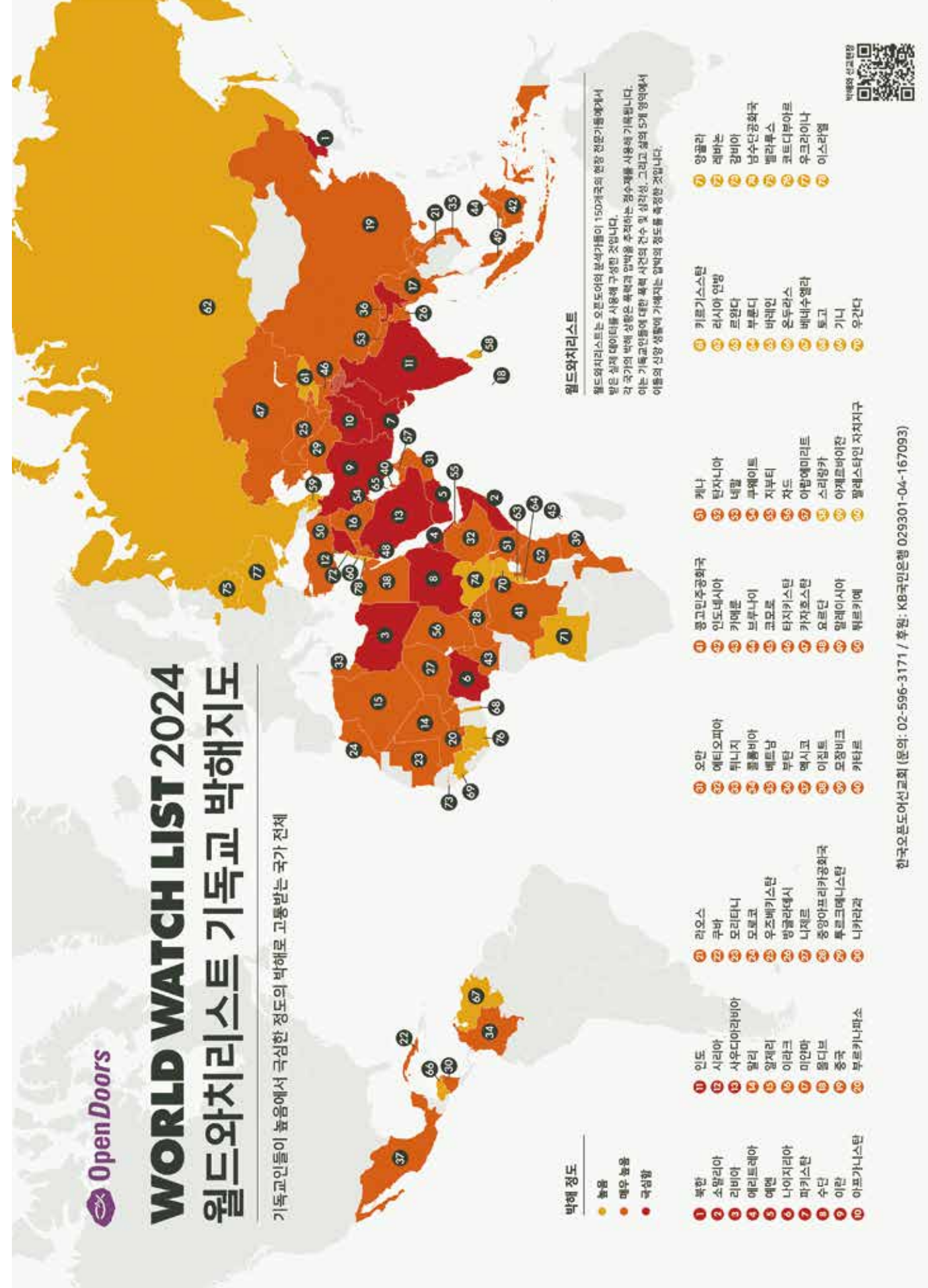
7 강제 복송의 위기에 처한 제 3국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10월 중국에서 600여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아직 수감되어있는 1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송된 이들이 당할 강도 높은 심문과 처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큼니다. 강제 복송을 당한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독교 신앙 및 선교사 접촉 여부 등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여전히 인적 왕래는 제한적인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담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새해를 맞아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청취 장애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4년 3월 29일



2024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북한선교 이해와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기회인
북한선교학교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주차	날짜	강의 주제	강사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 이해	1	4/8	북한선교와 한국교회	하충엽 교수(송실대)
	2	4/15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사회와 문화 이해	최설 박사(심연북한연구소)
	3	4/22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경제와 장마당 이해	양운철 박사(세종연구원)
	4	4/29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이해	정종기 교수(아신대)
	5	5/6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 교회사 이해	유관지 목사(북한교회연구원)
	6	5/14(화요일)	DMZ 기도회	
북한 선교 현장 이해	7	5/20	북한 종교 박해의 실상	박한나 목사(북한수용소 경험 지하 교회 성도 출신)
	8	5/27	국내 정착 탈북민선교 사역의 이해	류달주 목사 (사랑방교회)
	9	6/3	북한선교에 있어서 국제 협력 문제	정인수 목사 (전 CCC 국제 부총재)
	10	6/10	비즈니스를 통한 북한선교	이다니엘 박사 (IBA 사무총장)
	11	6/17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대표(TWR 북방선교방송)
	12	6/24	제삼국 북한선교 현장 이야기	현장사역자
	13	7/1	제삼국 북한 여성사역 현장 이야기	현장사역자
	14	7/8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신자, 수료식	현장사역자
	15	7월 중	제삼국 비전트립	

시간 2024. 4. 8 ~ 7. 8 매주 월요일 저녁 7:15 ~ 9:15

장소 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01호, 상봉역 부근)
*현장강의를 기본으로 하며 지방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강의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회비 15만원 (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접수 2024. 2. 26 ~ 3. 29, 오픈도어 홈페이지(<https://www.opendoors.or.kr/>) - “이벤트 및 공지 사항”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 한아론 선교사 (010-5107-8448)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